

제공일자	2008. 2. 5	담당자	유진아 부연구위원
홍보담당	김 진 역 선임(368-4413)	연락처	368-4430 총 2매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 분석

정책금리 인하 효과는 가계소비 진작에 더 효과적 - 경제위기 때는 그 효과가 평상시에 비해 축소 -

최근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테마진단 리포트를 작성한 보험연구원(원장 : 나동민)의 유진아 부연구위원은 “정책금리의 인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금리의 인하를 동반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보다 가계의 대출금리 인하를 더욱 빠르게 유도하므로 기업투자 보다는 가계소비 진작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심화된 경제상황에서,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려 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인하에 의한 소비진작 효과는 정상적인 상황에 비해 작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경기침체는 모두 내수부진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수출증가로 인하여 내수부진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의 타개를 위한 내수 진작책의 강구가 시급히 요청된다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연속적인 정책금리를 인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은행, 가계, 기업 등의 개별 경제주체가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하면서

우선, 정책금리의 변동에 대하여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인 은행채권 수익률과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1-2개월 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자본조달의 대부분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가계도 비교적 단기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채권 수익률 등은 정책금리의 인하에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아, 기업투자가 조속히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기업은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인하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즉각적으로 기업의 자본비용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정책금리 인하가 가계의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의 확대와 소비활동의 활성화로 연결된다면 현재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